

대한민국 대전환 선거대책위원회 노동위원회

※담당: 정책홍보팀([nodong220309@gmail.com](mailto:nodong220309@gmail.com), 02-6788-3619)

## 17일, 더불어민주당 -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대선승리, 버스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협약식 개최

- ▶ 민주당과 한국노총 간 주요 산별연맹 중 첫 번째 정책협약 체결
- ▶ 이낙연 국가비전·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 서명 주체로 참여
- ▶ 서종수 연맹 위원장, 정권재창출과 민주당 대선승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혀

-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노동위원회(상임위원장 : 김주영, 안호영, 신승철)는 17일(월) 11시 국회본청 민주당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한국노총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자동차노련)과 정책협약식을 개최했다.
- 협약식에서 민주당 선대위에서는 이낙연 국가비전·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이 서명 주체로 참석했고, 노동위원회 김주영, 안호영 상임위원장과 이수진, 박해철 공동위원장, 정책본부 허영 부분부장, 직능본부 박상혁 상임부분부장 등이 참석했다.
- 또한, 자동차노련에서는 10만 버스 노동자와 운수 노동자를 대표하여 서종수 위원장과 연맹 임원진, 서울버스노조를 비롯한 주요 지역버스노조 위원장 등 간부진 20여 명이 대거 참석했다.
- 협약서에서는 버스 노동자가 국민의 안전과 대중교통의 사회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우리 사회의 ‘필수 노동자’임을 재확인하고, △ ‘대중교통 버스계정’의 신설, △ 대중교통시스템 구축을 위한 중앙과 지방정부의 역할 강화, △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진전을 위한 ‘버스 이용 활성화 정책’ 수립 등이 담겨 있고,

- 민주당과 함께 ‘협약이행분과’ 구성 운영을 통해, 국민 이동편의 제고 노력을 계속하기로 하는 등 민주당과 자동차노련의 협력 사항도 포함돼 있다.
- 이낙연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자동차노련과의 정책협약식이 대선 승리와 버스공공성 확보를 위한 여정에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강조했고, 향후 자동차노련과의 협약을 지키기 위한 당과 차기 정부의 노력이 책임감 있게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 이어서, 자동차노련을 시작으로 노동계의 정책협약, 지지선언이 이어질 것이며, 2월 초순에 예정되어 있는 한국노총 대선 후보 지지 선언 추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감을 표했다.
- 서종수 자동차노련 위원장은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준공영제 확대 등 지방정부의 역할 강화, △버스 노동자의 처우 개선, △ 효율적인 환승 시스템구축 등 핵심 과제들은 대중교통 정책의 성패를 가늠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 말했다
- 이어 협약 내용의 실현을 위해 연맹에서는 정권 재창출과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밝혔다.
- 이어진 비공개 간담회에서 자동차노련 참가자들은 필수노동자 선정, 장거리노선 문제, 임금삭감 문제 등 처우개선 사항에 대해 건의했으며, 노동위원회 안호영, 이수진 의원 등은 코로나 위기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연장을 위한 추경예산 반영에 당이 신속히 나서겠다고 발언했다(끝)

- 붙임 : 1. 정책협약서 1부  
 2. 행사 사진

[붙임 1]

## 제20대 대통령선거 승리와 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한 더불어민주당 ·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정책 협약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과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교통편의 제고와 이동권 보장에 있어 버스의 중추적 역할 확대와 공공성 강화 필요성에 깊게 공감하고 상호 신뢰와 연대로 제20대 대통령선거의 승리와 버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한다.

### 다 음

1. 더불어민주당과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은 버스의 공공성 강화 방안으로 대중교통 육성법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대중교통 버스계정’의 신설을 추진하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협의로 실질적인 대중교통 지원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한다.
2.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과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 가능한 대중교통시스템 구축을 위한 중앙과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화하고 버스 준공영제 등 효과적인 버스운영체계의 도입을 추진한다.
3. 더불어민주당과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은 버스 노동자가 국민의 안전과 대중교통의 사회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우리 사회의 ‘필수 노동자’임을 재확인하며 버스 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고용안정을 위한 대책을 마련한다.

4.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과 더불어민주당은 심각한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조속한 진전을 위하여 ‘버스 이용 활성화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국민의 이동 편의를 제고하는 효율적인 환승시스템의 개선을 도모한다.
5. 더불어민주당과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은 협약의 이행과 성과 있는 실천을 담보하는 제20대 대통령선거의 승리를 위하여 연대 협력하며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에 ‘협약이행분과’를 설치하여 공동 운영한다.

2022년 1월 17일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대전환 중앙선대위  
국가비전·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 이낙연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서종수

[붙임 2] 행사 사진



